

공 고

지난 4일 선관위에서 발송한 선거홍보물 중 일부 이사장 후보 출마 취지문 내용에 선거법 제23조 1항에 관한 상대 후보 비방 및 허위 사실 유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선관위에서 확인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기호 1번 이복동 후보 상대방 비방 및 허위사실 기재 내용

1. 카풀과 타다의 불법 영업 시 김승일 이사장은 나 몰라라 뒷집만 지고 있었다(허위 사실)
2. 회계비리, 보험업무 비리 등 아니한 구태 직원 타파(비방)
3. 김승일 개인 명의로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허위 사실)
4. 이사장 자격이 없습니다(허위 사실)
5. 미터기 개정 작업 시 김승일은 즐거운 해외여행(허위 사실)
6. 영세가맹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행위(비방)
7. 정관개정 시 김승일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조합 돈 2,000만원 소송비로 손해(비방)
8. 조합의 정식기구도 아닌 비상대책위 결정이라며 1만 원씩 조의금 지로 납부토록함(허위 사실)
9. 13대 이사장 선거가 있기에 조합비 인상을 미뤘다(허위 사실)

기호 3번 송지훈 후보 상대방 비방 및 허위사실 기재 내용

1. 입으로만 업권 보호를 외치고 뒤에서는 사리사욕에 배를 채운다(비방)
2. 조합비를 사용하여 공직 선거에 후원했다(허위 사실)
3. 조합은 현재 파산상태(허위 사실)
4. 공제조합 경영부실 파산상태(허위 사실)
5. 공제조합의 운영권과 결재권이 현 이사장에게 있다(허위 사실)
6. 공제가 국토부 것이라고 말하는 현 이사장의 말(허위 사실)
7. 공제사고처리 비용으로 매월 1250만원과 출동수당(허위 사실)
8. 공제 사고출동 지부장 5명 운영(허위 사실)
9. 영세카드단말기 장착사업은 조합에서 미터기 장사를 한 것(허위 사실)
10. 수차례 조합콜 시도로 엄청난 조합비 탕진(허위 사실)
11. 시민의 혈세를 지원받아 개인의 배만 불린다(허위 사실)
12. 송 후보가 인천시와 갯등 교체 협의 중 현 이사장이 교체를 묵살했다(비방)
13. 30년간 거래해오던 주거래 은행 변경(허위 사실)
14. 조합비를 개인 금고로 사용하였다(허위 사실)

조합원 여러분!

선거규정 제23조 3항 규정에 의하면 허위사실 유포 및 상대방 비방 내용이 3건 이상 일 때, 후보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호 1번 이복동 후보는 9회, 기호 3번 송지훈 후보는 14회 위반하여 두 후보자 모두 이사장 후보자 등록 취소에 해당하나 후보자 등록 취소 시 고소 고발로 조합손실이 예상되는 바 본 선관위에서는 위와 같이 선거법 위반 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게재하고 선거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선거홍보물을 발송하기 전에 선거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발송하게 된 점 사과드리며 공정 선거를 위한 노력에 협조 바랍니다.

※ 허위 사실 및 비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조합 홈페이지 참조

2019년 11월 10일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제13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해명 자료

□ 기호 1번 이복동 후보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에 대한 해명

1. 카풀과 타다의 불법 영업 시 김승일 이사장은 나몰라라 뒷집만 지고 있었다.(취지문 12~13줄, 허위사실)

-사실 : 김승일 이사장은 여의도, 광화문, 분당 카카오 본사 등의 집회를 통해 국토부를 압박하여 운수사업법을 준수하게 하고 렌트카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가 위법하다는 국토부 발표를 이끌어내는 등 택시업계 4개 단체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

2. 회계비리, 보험업무비리 등 아니한 구태 직원 타파. (취지문 17~18줄, 허위사실)

-사실 : 회계 및 보험업무 비리를 저지른 직원은 없음.

3. 김승일 개인 명의로 공동대표이사로 등기. (조합의 실상 2~4줄, 허위사실)

-사실 : 계약에 의하여 조합 대표자 지위로 등기하였음.

4. 이사장 자격이 없습니다. (조합의 실상 7줄, 허위사실)

-사실 : 선거규정 제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4항 출마 자격 제한규정에 해당 없음.

5. 미터기 개정 작업 시 김승일은 즐거운 해외여행. (조합의 실상 8~10줄, 허위사실)

-사실 : E1 본사의 경영자 회의에 참석하고 미터기개정 2일전에 도착하여 미터기 개정 작업시 조합원님들에게 새벽까지 물과 빵을 사다 나누어 주었음.

6. 영세가맹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행위. (조합의 실상 11~13줄, 비방)

-사실 : 영세가맹점 전환으로 이비, 스마트를 포함하여 전체 조합원의 카드수수료가 대폭 인하 되었음.

7. 정관개정시 김승일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조합 돈 2,000만원 소송비로 손해. (조합의 실상 15~16줄, 허위사실)

-사실 : 행정소송 승소 한건으로 조합 발전에 이익을 주었음.

8. 조합의 정식기구도 아닌 비상대책위 결정이라며 1만원씩 조의금 지로 납부토록 함.(조합의 실상 19~20줄, 허위사실)

-사실 : 이사, 대의원의 의결 받은 사항임.

9. 13대 이사장 선거가 있기에 조합비 인상을 미뤘다. (조합의 실상, 21~22줄, 허위사실)

-사실 : 조합비 인상 공청회를 열었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완강히 반대하여 보류.

□ 기호 3번 송지훈 후보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에 대한 해명

1. 입으로만 업권보호를 외치고 뒤에서는 사리사욕에 배를 채운다. (비방)

-사실 : 사리사욕에 대한 사실이 없음.

2. 조합비를 사용하여 공직선거에 후원했다. (허위사실)

-사실 : 조합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메시지 전송한 사실만 있음.

3. 조합은 현재 파산상태. (허위사실)

-사실 : 현재 복지규정의 제도적 모순으로 과다지출이 되고 있을 뿐 조합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4. 공제조합 경영부실 파산상태. (허위사실)

-사실 : 사고율이 높아 적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공제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

5. 공제조합의 운영권과 결재권이 현 이사장에게 있다. (허위사실)

-사실 : 조합 이사장은 자문위원장이며 인천공제조합의 운영권과 결재권은 현재 인천공제 지부장에게 있다.

6. 공제가 국토부 것이라고 말하는 현 이사장의 말. (허위사실)

-사실 : 공제조합의 예산과 공제규정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운영 한다고 한 사실은 있으나 공제가 국토부 것이라고 한 사실이 없음.

7. 공제사고처리 비용으로 매월 1250만원과 출동수당까지 포함하여 1550만원을 사용한다. (허위사실)

-사실 : 공제조합의 지원금은 750만원 임.

8. 공제 사고출동 지부장 5명 운영. (허위사실)

-사실 : 인천 전역 3개 지부장제로 운영

9. 영세카드단말기 장착사업은 조합에서 미터기 장사를 한 것이다. (비방)

-사실 : 영세가맹점 단말기 추진으로 이비, 스마트사의 카드수수료가 대폭 인하 됨.

10. 수차례 조합콜 시도로 엄청난 조합비 탕진. (허위사실)

-사실 : 조합비가 들어간 사실이 없음.

11. 시민의 혈세를 지원받아 개인의 배만 불린다. (비방과 허위사실)

-사실 : 개인의 배를 불린 사실이 없음.

12. 송 후보가 인천시와 갯등 교체 협의 중 현 이사장이 교체를 묵살했다. (비방)

-사실 : 송 후보가 무슨 자격으로 인천시와 협상을 했는지는 모르나 조합은 협상한 적이 없음.

13. 주거래 은행 변경 시 이사, 대의원의 심의 의결이 없었다. (비방)

-사실 : 주거래은행 변경은 조합 운영상의 문제이며 이사, 대의원의 의결 사항이 아님.

14. 조합비를 개인금고로 사용하였다. (허위사실)

-사실 : 개인금고로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한 적도 없음.